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책GPT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박*윤	학번		이름	안*찬
	학번		이름	김*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이*호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 심 판 ]</p> <p><b>토의 주제</b></p> <p>1. 환생이란 것은 벌일까?</p> <p>- 강*연 : 아니다. 일단 책의 전제 하에 이야기하자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그 벌이라면, 더해서 그 운명조차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를 형벌이라 할 수 있을까? 북클럽의 다른 팀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아닌 동물, 혹은 그 외의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이라면 형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으로의 환생은 오히려 다른 책에서는 '상'으로 나오기도 한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는 쪽이고.</p> <p>- 김*빈 : 그렇다. 운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목적이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고통스럽게 환생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벌이라 생각한다.</p> <p>- 박*윤 : 그렇다. 다시 태어나서 고난을 겪는 것 자체가 벌이라 생각. 다음 생을 선택할 때 기억을 가진 채로 선택하기 때문에 행복할지라도 환생을 할 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나는 행복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 힘들게 살아야 천국에 남고, 여유롭게 살면 다시 환생을 하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p> <p>- 안*찬 : 아니다. 책 내용 처럼 천국에서 나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의 삶은 자유롭게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선택했던 것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p> <p>- 이*호 : 아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p>							

다.

1) 책에서 묘사되는 삶의 형에 대한 답변

결국 아나톨은 삶의 형을 다시 한번 선고받으며 이후의 생을 설계할 때, 절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볼 수 없을 삶을 설계했다. 충실한 삶, 순교하는 삶이란 그런 환경에서 나타나기 쉽다는 주변 재판장, 검사, 변호인의 말에 따라서 말이다. 이런 수순을 보며 다시 태어남을 삶의 형을 만드는 것은 다음 생을 설계한 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잔인한 수순과 결과값, 이는 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 책을 기반한 나의 답변

이 책에서 규정하는 대로 내가 태어날 위치, 부모, 재능, 핸디캡 등을 정하며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별이라기보다는 상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다. 상이라고 묘사되는 운회를 끊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행동이 삶을 별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애초에 우리는 천계의 삶이 어떨지 경험해본 바 없으며, 어떻게 본다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소설 쓰듯 설계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천계의 삶을 포기한다는 가정하에 이 삶의 형은 별이 아니다.

2. 지금의 삶은 별인가?

- 강\*연 : 이게 참 이상한게, 책을 전제로 이야기하면 어느 상상이든 할 수 있는데, 책 기반이 아니라 현실을 전제로 하면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지금 나의 삶이 형별인가를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삶을 살고 있고, 형별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게 뭐 있을까. 형별이라면 형별이고 상이라면 상이라고 생각한다.

- 김\*빈 : 아니다. 행복해서 별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즉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걸 할 수 있는건 별이 아니라 생각한다.

- 박\*윤 : 그렇다. 별이다. 자유로운 사회를 표방하지만, 구조적으로 자유롭다고 느끼기는 어렵다. 하지만, 계층간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도전에 대한 부담감이 커 이 삶은 별이라 생각한다.

- 안\*찬 : 아니다. 현재 너무 만족하는 삶이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은 별이 아니라 생각한다.

- 이\*호 : 아직,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보통 알려진 바로는 의식이 소멸하며, 육체가 소멸한다. 즉, 무(無)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무의 상태에서는 사고할 수 없기에 가치판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만이 환생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존재하기에, 삶이 있기에 인간으로 환생함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무로 돌아간다면 환생에 대한 가치판단은 의미가 없게 된다. 즉, 죽어서 무로 돌아갈 것인가, 환생할 것인가를 논한다면 환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적인 생각일 정도로 압도적인 상이다. 따라서 나는 형벌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몰라도, 내 삶을 형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3. 내가 아나톨이었다면, 어떤 결말을 만들었을까?

- 강\*연 : 책 속 아나톨은 다시 태어나는 자신의 형벌을 거부하고 천국의 재판장이 된다. 만약 내가 아나톨이었다면, 나는 천국의 재판장보다는 인간의 삶을 선택할 것 같다. 책에서 '천국'은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천국의 장점이 묘사되었다면 그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아나톨이라면 일단 태어나는 조건 자체를 바꾸고 싶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학대에서 고난을 겪는 삶이라니, 아무리 그 고난으로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 '나'는 내가 선택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전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다. 이것도 책에서 이야기 한 '순응'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으로 환생하고 싶다. 물론 그에 맞는 핸디캡이 있겠지만.

- 김\*빈 : 아나톨은 결국 판사인 가브리엘을 설득하고 천계의 판사로 살아가게 되었다.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아나톨이라면 자기변호를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다. 천계의 판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남고자 했을 것이다. 죽기 전에도 판사라는 일로 고통받았으면서 죽고 나서도 판사라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나는 너무 힘들고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 박\*윤 : 나는 일단 천계에 남아 있을 것 같다. 아나톨은 현생에서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고 쉬고 싶기 때문에 천계를 선택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천계라고 쉽고 좋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의 운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보다 천계에 남아 사람들의 삶도 지켜보고 그러면 스스로 배울 점도 있지 않을까 싶다.

- 안\*찬 : 아나톨과 반대로 인간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책에서는 천국이 지루한 공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나는 진부한 삶보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으로 갈 것 같다.

- 이\*호 : 내가 아나톨이었다면, 우선 굉장한 공포에 떨었을 것 같다. 인생의 끝은 천계 혹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심지어 다음 생에서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윤회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굴레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허무함과 함께 엄

청난 공포에 빠졌을 것 같다. 따라서 결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맞이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다. 나는 그저 심판받고, 그 심판에 대한 형벌을 겸허히 받아들여거나 천계에 남아 일종의 구원받게 됨에 감사함을 느꼈을 것 같다.

### 감상문

- 강\*연 -

책의 전체적인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읽기가 쉬운 점. 희곡 형식의 『심판』은 밀리의서재 기준 약 260페이지로, 페이지만 본다면 은근 길다고 생각될 수 있다. 희곡형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책을 펼칠때 한두시간은 족히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한시간도 안돼서 읽은 듯 싶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책의 주인공인 아나톨은 자신의 인생을 기반으로 심판받는다. 그의 죄는 다섯살 무렵 친구의 머리채를 잡은 것, 똥똥하고 못생긴 여자와 결혼한 것, 판사였던 아나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 속도위반을 1500건 넘게 저지른 것 등등.. 여러 죄가 언급된다. 천국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그의 죄는 책에 등장한 것 외에도 더 많을 것이다.

언급된 여러 죄들은 대부분 이해 가능한 죄이다. 하지만 그 중 이해가 안되는 것이 똥똥하고 못생긴 여자와 결혼한 것.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결혼에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의 아내와 하룻밤의 실수로 결혼을 하게 된 것.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껴도 그 결혼을 유지하려 한것. 이 모든 것이 그의 죄가 된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가지게 한다. 물론 천국의 입장으로 서술되니 어느정도 느렇다고는 쳐도, 현대의 인간인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책을 읽는 중간중간 또 다른 불만은 책의 전제 내용이 맘에 들지 않다는 것이었다. 삶을 심판받고 받는 벌이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라니,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물론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잊고 새로 태어난다고 해도,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지 않은가? 그 반대인 '상'은? 천국에 사는 것이 '상'으로 묘사된다. 문제는 그 '천국'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료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상'으로 구분된다.

이것을 '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추가로, 삶의 심판에서 인간으로 환생 아니면 천국에서의 생활, 이 2가지로 결정되는 이분법적인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본다.

- 김\*빈 -

책을 자주 읽지 않는 나이기에, 희곡은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심판>은 내게 희곡의 매력을 알려준 책이었다. 읽으면서 계속 그 장면이 상상되었고 몰입되었다. 책을 펼치자마자 2시간 만에 다 읽었다. 읽고 나선 든 생각은, 결국 책에서 말하는 건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순응

하며 안전한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무모한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책의 주인공인 아나톨이 변호 과정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겪는 부분도 흥미롭게 다가왔다. 하지만 아나톨이 전생이 판사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자기변호에 수동적인 부분은 아쉬웠다. 만약 아나톨이 카롤린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환생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필요했겠지만, 캐릭터 설정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삶의 태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유익한 책이었다.

- 박\*윤 -

”욕구를 해소하려 하지 않은 자.. 지옥행?“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천국을 유토피아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간다?“와 비슷한 말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을 지옥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부정하면서 이어가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저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난 이 책이 욕구, 욕망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욕구를 갖고 있다. 생계적인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욕구가 발생하면 우리는 해소를 하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특히 자아실현의 욕구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운 좋아야 한 번에 해소되지만 보통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해소된다. 물론 끝까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실패의 고통이 작았으면 좋으련만 실패의 고통은 보통 크게 다가와 사람들이 회피하게 만든다. 저자는 이 점을 비판했다. 책의 주인공 아나톨은 폐암으로 사망한 중년 남성이다. 아나톨의 인생의 흐름을 보았을 때 연극을 했어야 했고, 고등학교 연극부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아나톨은 여자에게 차일까봐 고백을 하지 않았고 연기의 한계를 느끼고 연극을 그만둔다. 또한 아나톨이 정으로 사는 아내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점. 심판에서는 판사가 유죄를 주었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인간은 회피형 인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시초는 성과주의로부터 왔다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안정적이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기분을 잠깐이라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는 이게 나쁜 것일까? 유죄일 것 까지? 라는 생각도 든다. 천국이라는 곳은 인간의 삶을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살기 위해 다른 삶을 선택한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책 속 검사는 아나톨이 아내와 성 욕구를 해소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어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륜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검사의 주장에 아나톨 변호사와 같이 ”저게 말이 돼?“라는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 도리는 누가 만든 것일까? 인간의 생각은 무한한데 하나의 규칙으로 가둬 버리는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동물들도 그들만의 규칙과 본능이 있을 것인데.. 인간도 결국 동물인데 도리라는 그것으로 우리 본능이 약간 가둬진 것이 아닐까.. 원래는 검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었나.. 라는 여러가지 생각

이 났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진 않았다. 지금 의견으로는 검사와 저자 의견에 완전 동의하진 않지만 인생을 돌아보고 분석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으나 싶다. 저자가 인간의 삶이 지옥이라고 말한 것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 안\*찬 -

베르나르베르베르 작가를 좋아하는 저로써는 이번 책도 정말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양한 문체와 스타일들이 늘 저를 매료시킵니다.

이번책은 희곡으로써 짧은 시간안에 다 읽을정도록 읽기 쉬운 책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읽기에는 좋지만 은근 생각하기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열심히 살았는가?라는 의문이 나한테 큰 파장을 불러냈다.이 책에서는 자신의 직업부터 사랑까지 모든 것을 열심히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내용들도 있었다. 검사인 베르트랑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열정적으로 할려면 바람도 존중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는 없었다. 잔잔하게 사랑하는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 꼭 열정적인 사랑이 좋은 사랑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아마도 천상에서의 올바름과 현실에서의 올바름이 다른 것을 얘기한거 같았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재미있었다.

또한 유죄를 받으면 능력을 선택하는 기회가 온다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고유 능력이 다르며, 이것은 전생에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하는거 같아서 좀 싫었다.내가 생각 하는 인생은 자신이 가꾸어 나가는거고 부족한 능력이 있으면 개발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너무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쉬웠다.

- 이\*호 -

“바쁜 일상 속 간단히 읽기 좋은 책, 그렇지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한 줄짜리 감상평이다.

이 책의 큰 줄기는 아나톨 피송이라는 인간이 사망한 후 그 인간의 처우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다. 처우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상(賞)인 천계에 남아 인간의 삶을 윤회하는 것을 멈추는 것과 벌(罪)인 환생이다. 이를 심판하는 것이 천계의 재판장인 가브리엘을 비롯한 검사 베르트랑, 변호인 카톨린이다. 이들 역시 인간 출신으로 심판을 받은 후 천계에 남아있다. 즉,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환생시킬지 말지를 심판한다.

당연히 그 심판의 내용은 그동안 살아오며 지어온 업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운전을 하며 과속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만, 이는 인간이기에 그럴만 하다는 이유로 변호 받는다. 그렇다면 어떤 죄를 심판하는 것일까. 바로 내 삶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다. 운명의 상대와 충실한 사랑을 하였는지, 정말 내가

	<p>하고 싶은,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고 이루어냈는지와 같은 내 삶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었다.</p> <p>작가가 만든 ‘심판’이라는 극에서 정해 놓은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에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검사인 베르트랑과 변호인인 카톨린에 대한 것이었다. 극 중에서 묘사되는 이 두 명의 ‘인간성’은 절대 존경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검사인 베르트랑은 충실한 삶을 위해서라는 시각으로 불륜을 옹호하기도 하고, 변호인인 카톨린은 피고의 변호를 위해서 피고를 비방하기도 한다. “과연 이 둘은 어떻게 천계에 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 책의 근간을 흔드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기도 했다. 동시에 이 지점에서 작가는 ‘절대 선’이라는 것과 ‘인간성’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회화되어오는 자질구레한 것들, 인간성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인생이라는 큰 줄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무관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즉, “인간이니까.”라는 말로 가볍게 죄를 사할 정도의 미미한 것일 뿐 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p> <p>이러한 생각 속에서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공리주의란 결과적으로 최대한 많은 이들이 최대한의 이득을 보면 되는 것이다. 또, 의무론이란 결과보다는 행위의 목적과 동기를 우선으로 한다. 비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기는 하지만, 천계의 심판장에서는 조금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묘사된 바에 따르면 심판받는 사람의 동기가 어찌 됐든, 그 정도야 ‘인간적’이라는 말로 죄를 사하여주고 행동의 결과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p> <p>이 책은 인간성과 도덕성 그리고 대업에 대해 삶의 목적과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지 나에게 질문하는 듯했다.</p>
--	--

북클럽 팀명	책GPT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05월 01일( 월요일) / 장 소 : CLC 1층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박*윤	학번		이름	안*찬
	학번		이름	김*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이*호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피로사회 ]</p> <p>토의 주제 : 성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할까.</p>							

- 강\*연 -

사회에 순응하고 성과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과 사회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그것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만이 사색적 삶을 산다고 하여도 결국 사회는 성과 사회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성과 주체는 먼저 앞서 나간다. 따라서 적자생존의 틀에 합당히 나는 성과 주체로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물론 사색적 삶에 대해 이상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세상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 김\*빈 -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성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와 타협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나 스스로 성과 사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나와 관련된 이들은 이미 그리고 계속해서 성과 사회의 일원일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과 사회의 탈피를 어렵게 한다. 부모님의 지원은 내가 성과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지원이었으며, 이 사회에 '나'라는 존재가 성과 주체로 자리 잡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구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와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사회와의 타협을 40% 정도, 미래의 자아실현 6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 박\*윤 -

현재의 삶에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응해야 할 필요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과 사회이기에 성과주의적 목표를 잃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성과주의적 목표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의 취향이라는 것이 반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과도기에는 성과 주체적 목표와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자아실현과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몰입하여 뚜렷한 삶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안\*찬 -

분명 우리 사회는 성과 사회이지만, 나는 내 길을 고수하겠다. 만약 정말 성과 사회에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도태될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길이다. 나에게서는 내 삶에 대한 이상향이 존재한다. 아무리 사회가 그것을 막을지라도 한번 사는 인생 테스트를 해보아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 인간이라는 종이기 때문이다.

- 이\*호 -

결국 우리는 성과 사회에 살고 있다. 나 역시 성과 사회의 파도에 휩쓸려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성과 사회에 순응하여 살지라도 나의 정신과 이상향은 그대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이다. 또, 성과 사회를 살아가며 지친 사람들에게



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성과 주체로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 아마 이는 본인의 이상과 현재의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괴리감에서 오는 것 같다. 나와 같이 성과 사회 속에서 이상향이라는 점을 남길 동료들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성과 사회의 오류를 인지해야 한다. 동시에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가고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 감상문

- 강\*연 -

『피로사회』는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한 책으로, 독일의 주요 언론 매체가 주목한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성찰을 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냉전, 면역학, 규율사회 등 적대성 내지 부정성을 바탕으로 한 과거의 사회에서 현재는 부정성이 제거되고 긍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했다. 그는 이 새로운 사회를 성과사회,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성과주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성과사회의 과잉활동, 과잉 자극에 맞서 사색적 삶, 영감을 주는 무위와 심심함, 휴식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피로'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성과를 내야 한다. 』

피로사회를 읽고 나면 규율사회, 성과사회, 우울증, 자기 착취, 깊은 심심함, 긍정의 과잉, 부정성. 딱 이 정도 기억에 남는다.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책을 읽는 동안 내가 했던 모든 생각들이 떠오른다.

『 규율사회와 성과사회 』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 성과사회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를 대표한다. 현재의 우리는 성과사회를 살고 있다. 이전의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긍정 과잉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긍정의 과잉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닌 '모든 해낼 수 있다'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긍정의 과잉의 시대라 부른다.

"규율사회는 생산성의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규율의 기술이나 금지는 그 한계를 가진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음이 그 향상을 이끌어낸다."라는 말은 성과사회가 여러모로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작가는 예상 밖의 이야기로 책을 이어나간다.

『 우울증 』

책은 이어서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한다. 알랭 에랭베르는 우울증을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성과사회는 만인에게 자기 자신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자기주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다. 그는 알랭 에렝베르가 단지 자아의 경제라는 관점에서만 관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말한다.

그는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우울증이란 성과사회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과사회에 내재된 시스템의 폭력이 심리적 경색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오직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닌,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과 주도권이 아니라 후기 근대적 노동사회의 새로운 계율이 된 성과주의의 명령이라고 말한다. 결국 자기가 가진 자유에 짓눌린 것이 아닌 성과사회에 짓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러한 주장에 완전히 공감하기보다는 이 두 주장이 모두 섞여야 한다 본다. 성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인간의 책임과 주도권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말한다. 성과사회의 짓눌림 중 하나가 자유에서 온다는 것이다. 과도한 책임과 주도관에서 오는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삶을 만들어간다. (성과주의의 결과가 과도한 책임과 주도권이라면, 인간의 책임과 주도권은 성과주의의 명령 중 하나가 되는 것인가? 매우 헷갈리는 사고가 되어버린다.)

이게 참 어렵다. 아직도 책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제 막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보니 또 새롭다.

#### 『 자기착취 』

"성과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 기구에서 자유롭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그는 자기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점에서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와 구별된다. 그러나 지배 기구의 소멸은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멸의 결과는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도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달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관계적 상태는 어떤 역설적 자유,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강제구조로 인해 폭력으로 돌변하는 자유를 낳는다. 성과사회의 심리적 질명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와닿은 부분이었다. 지금의 우리는 딱 이 상태이다. 과도한 자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야 한다. 강요하고 명령하는 외부의 착취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강요하고 명령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착취자가 된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착취, 좋게 말하면 자기개발이라고 하자.

이건 개인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자기착취일까 자기개발일까? 어느 시대든 자기를 위한 행동이 주가 된다. 물론 성과사회보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성과사회가 그 정도가 심하긴 하다. 요즈음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성과를 내야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큰 좌절을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되어버린다. 사회 분위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봐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과사회는 경쟁을 가속화시

켰다. 규율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이보다는 덜했을까? N잡러, 우리는 유튜버, 회사원, 블로거, 인플루언서, 사업자, 이 모든 것을 하는 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의 이 현상은 성과주의의 결과일까? 단순한 자기개발의 일환일까?

『 깊은 심심함 』

"인류의 문화적 업적인 깊은 사색으로부터 왔다. 문화는 깊이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다. 산만함이 특징인 과잉주의에 깊은 사색은 거진 불가능해졌다. 우리는 심심한 것에 참을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창조적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심심함도 허용하지 못한다."

사색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부정적이다. 나만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사색을 하면서도 그다음 행동을 생각한다. 진정한 사색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 시간에 다른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사색의 시간을 아껴 대단한 생산활동을 하지도,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럼에도 나는 '사색'에 불편함을 느낀다. 사색이 가져다주는 것은 많겠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 성과사회는 이러한 점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과가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나는 사색의 방법조차 모를지도 모른다.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재능과 함께 이완의 소멸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깊은 심심함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듣는 능력을 잃었다. 나에게도 적용되는 문장이다. 요즘 듣는 것에 대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이 느껴진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게 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성과사회의 결과라면,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야말로 개인주의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인 '나'를 성과사회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인간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을 동경하고, 따라한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요즘이다.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행동이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이 현상을 옳은 상황으로 만든다. 우리는 옳은 상황에 따라가야 한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한나 아렌트의 견해에 따르면 활동적 삶은 전통적으로 단순히 조급함, 여유없음으로 부당하게 폄하되어왔다." 이 문장을 보자마자 '아 성과사회를 대변해 줄 사람이 등장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과사회의 비판은 이어진다. 그녀는 활동적 삶, 행동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과정을 발동시키는 것이라면, 근대의 인간은 반대로 익명적 삶의 과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사유도 계산이라는 뇌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제작과 행동을 아우르는 활

동적 삶의 모든 형식은 노동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아렌트는 또한 현재 인간은 동물로 변신하려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다.

이에 작가는 후기 근대의 노동하는 동물은 자신의 개성이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로 무장하고 있다. 이는 수동성과는 거리가 멀다. 동물로 변하고 있다면 그 느긋함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은 과도하게 활동적이고 신경과민 상태이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초조하고 부산한 상태에 빠지는가? 라는 질문으로 반박한다.

결국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성과사회가 부정적임을 이야기하는 맥락은 비슷한...

나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초조하고 부산한 상태에 빠지는가?에 집중했다. 자아로 무장한 우리는 개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그 개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초조해진다. 우리는 개성도 찾아야 하고, 성과도 내야 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 그 과정에서 사색을 찾기는 힘들다. 사색의 시간을 가지기 힘들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우리는 자아(개성)를 찾는 그 시간을 사색이라고 부를 수 없다.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색으로 우리를 구성하고 찾기에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물론 사색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색을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한 지는 꽤 되지 않았나.

책은 계속해서 성과사회의 허무함을 강조한다. "근대는 인간 삶을 극단적인 허무 속에 빠뜨린다. 오늘날처럼 텅없었던 적은 없었다. 극단적으로 텅없는 것은 인간 삶만이 아니다. 그 어디에도 지속과 불변을 약속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존재의 결핍 앞에서 불안과 초조가 생겨난다. 죽음의 기술, 종교도 이를 덜어주기에는 그 효력이 다했다" 우리는 텅없는 삶을 살고 있나? 확실히 그 느낌은 있을지도 모른다. 치열하게 살고 있음에도 그 속이 빈 듯한 느낌.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쫓긴다.

다음으로도 비슷한 맥락의 글이 이어진다.

"과잉활동, 노동과 생산의 히스테리는 바로 극단적으로 허무해진 삶,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반응이다. 오늘날 진행 중인 삶의 가속화 역시 이러한 존재의 결핍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동 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강제사회에서는 모두가 저마다의 노동수용소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그 노동수용소의 특징은 한 사람이 동시에 포로이자 감독관이며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점에 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은 착취한다. 이로써 지배 없는 착취가 가능해진다."

규율사회의 착취자는 누구인가. 착취자의 주체만 바뀐 것 아닌가. 규율사회에서의 성과사회로의 이동은 당연한 것인가. 우리는 이 현상을 바꿀 수 없다.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를 가졌지만 순응해야 한다. 피로하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피로사회 p.28

이 문장은 그동안 내가,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수없이 말했던 "못하겠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만한 말이었음을 깨달았다.

- 김\*빈 -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울증이 긍정성의 과잉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는 정보와 자극, 중독이 넘쳐나는 과잉활동의 시대라고 한다. 모든 것이 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깊은 심심함', '사색', '내면적 평온함'이 사라지고 있다 한다. 깊은 심심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구절에 나는 적극 동의했다. 아침에 등교하기 위해 집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에어팟을 끼고 바쁘게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이다.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도 심심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다. 우리에게 심심함, 즉 내면적 평온함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빨리 지치고 심적으로 고통 받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취업준비에 고통받는 모든 취준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책에서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규율에 따라 움직이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성과사회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계속 시도하고 도전한다. 그 과정에서 낙오자가 생기고 '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심적으로 고통받는다. 나는 사회가 취준생들을 '할 수 있다'라고 밀어붙이는 거 같다고 생각했다. 이 압박감 때문에 취준생들이 우울하고 탈진감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우울증과 피로한 사회에 대해 위로를 건네기보다 학술적으로 설명해주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해준다. 취준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스스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하고 싶다.

- 박\*윤 -

“나를 위해 성과를 내고 성과를 위해 나를 부시는 행위”

유럽에서 더 유명한 작가. ”한병철“ 작가의 책이다. 저자가 현대 사회의 병리학적인 문제를 ‘자기 착취’로 풀어낸 책이다. 사람들은 왜 자기 착취를 할까? 강사 이지영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게 행복한 것이다“ 동의한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정해진 공부를 할 것이고, 노비로 태어났다면 평생 바닥을 쓸고 있고, 세자로 태어났다면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처럼 여러가지를 꿈꾸고 있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기착취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자기 착취를 하는 이유는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자유롭지만 강제적인 선택을 한다. 타인에게 착취하는 것보다 자기 착취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 효율적이라 한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죄책감과 우울증 등 각종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은 90년대 급격히 발전한 뒤부터 굉장한 성과주의 사회를 강요했던 것 같다. 주입식교육만 봐도 그렇다. 대학에 가면 다들 스펙 쌓기 급급하고, 막상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사실 사회의 틀은 대부분 그렇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실패를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자기 착취를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실 성과는 끝이 없는데 말이다. 성과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죽기 전까지의 과정일 수도 있다. 자기 착취로 얻은 자아 피로가 언제쯤 치유적 피로로 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변화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보통 인문한책이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게끔 전달하지만 이 책은 전문가에게 전달하는, 주장하는 책인 것 같다. 때문에 어려웠고, 반복하게 읽게 됐던 것 같다. 오히려 피로한 사회를 주장하다 이 책을 읽은 내가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었달까? 근데 이런 느낌을 들었던 것도 내가 빨리 결론을 알고 이해를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그랬던 걸까? 라는 생각도 든다. 책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철학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안\*찬 -

이 책을 나는 비판적으로 보았다. 사실 참신한 소재이기도 하였다. 우울증이 긍정성 과잉에서 온다는 것이. 그러나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읽었으면 나한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 같은데, 이 책이 나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책의 평가에 반대로 나는 비평만 존재 한 거 같았다.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재미있었다. “깊은 심심함”, “사색”같은 단어였다. 요즘 같은 삶은 과연 우리가 여유를 느꼈을까?

다들 사느라 바쁘며 짧은 시간에도 뇌의 휴식보다는 짧은 시간에도 음악, 웹툰, SNS등 뇌를 계속 활동시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뇌를 점점 휴식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우리는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잔다. 뇌에 휴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깊은 심심함, 사색을 즐겨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긍정에서 오기보다는 주변 시선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 같다. 우리는 SNS 속에 사는 것 같기도 하다. 남들한테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긍정성에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SNS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 같았다.

- 이\*호 -

부정성을 배제하는 사회, 부정성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인 분노는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중지할 힘을 갖는다. 이는 곧 어떤 상황을 타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부정성이 배제될 경우 우리에게겐 자극에 대한 수용 상태만이 남는다. 일체의 머뭇거림 없이 어떤 상황을 긍정하고 이를 수행한다. 즉 판단이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판단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면역 반응을 위해 부정적 타자의 파편(병균의 파편)만을 자아 속으로 투입하는 백신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며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는 선

조들이 이루어 낸 부정의 부정을 통한 정답을 수용한다. 그들(선조들)이 만들어 낸 부정성의 역사를 긍정하며 파편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부정성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간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본인 스스로의 부정성을 훈련받지 못하게 한다. 물론 이를 보편적이라고 할 순 없다. 그럼에도 이는 과거의 부정성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를 도울 뿐이다. 이런 무저항적인 부정성의 수용은 도래할 미래 속 새로운 긍정성에 대해 부정하기 힘들게 한다.

성과사회에서는 결과물, 이윤과 같이 성과가 더 많이 나오는 방법이 바로 정답이고 이것이 현대의 긍정성의 스테레오타입이다. 일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답에 대해 긍정하고 이를 따라간다. 우리는 단순히 성과를 위한 판단을 한다. 그 일이 성과적일 경우 시행하며, 성과적이지 않을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시행하지 않는다는 행동의 근원은 곧 성과라는 긍정성에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성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 과정은 능동적인 사고 과정이라기보다 기계적인 사고 과정 속에 진행된다. 무한 성과주의를 긍정하는 현대 사회는 개인을 하나의 성과주의적 기계 부품으로 만들어간다.

부정성이 배제된 사회, 부정성이 배제된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떠할까. 위의 단락에서도 이야기하였듯 일체의 머뭇거림 없이 어떤 상황을 수용하고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계속되는 긍정성에 지치고 말 것이다. 사회의 스테레오타입에 계속해서 본인을 맞추어가는 우리는 병들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린 부정하는 법을 모르기에 스스로 멈출 수 없다. 언젠가 탈진하여 쓰러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정답이 정해진 사회에선 그 정답을 따라가는 것만이 옳은 길이 된다. 성과사회인 현대에서 우리는 성과를 위해 노동하고 노동하기 위해 배운다. 그 과정에서 사회가 원하는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이는 끊임없는 자기검열을 시도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조차 우린 탈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린 정해진 답이 있기에 이를 부정하지 못하고 그저 긍정하며, 그저 수긍하며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뿐이다.

미셸 푸코가 말했던 규율사회에서 폭력은 사형장의 길로틴과 같이 가시적, 부정적, 외재적인 것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이를 내재한 성과사회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폭력은 자연스레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외재적인 것에서 내재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변화한 폭력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하는 폭력을 말하는데, 실재하지 않는 스스로에게 내재된 타자가 행하는 폭력이다. 이 내재된 타자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말한다. 즉 현대의 폭력은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자기 검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보여지며 사회상에선 미덕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 정신적인 측면의 데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폭력이며 본인 스스로라기보다 사회가

	<p>원하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구속적이다.</p> <p>이상의 것들이 내가 피로사회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한 내용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만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현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젊은이들, 사람도 별로 없는 듯하다. 본인이 본인을 해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긍정성의 과잉 속에 본인을 확대하는 이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성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며, 부정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부터, 내 주변인까지라도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p>
--	---

<b>북클럽 팀명</b>	<b>책GPT</b>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 년 05 월 08 일 (월요일) / 장 소 : CLC 1층 글로벌라운지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박*윤	학번		이름	안*찬
	학번		이름	김*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이*호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lt; 역행자 &gt;  <b>토의주제1 : 책의 1단계에 따라 우리는 현재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자의식 해체)</b></p> <p>김*빈 :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름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며 해야 할 일을 곤장 미룬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일을 미루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면서도 운으로 좋은 결과를 낸 업무에 대해서 뽐낸다. 자의식 과잉 상태로 남들을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깔아보았다.</p> <p>강*연 : 자의식 해체를 3단계로 해보자면, 탐색 단계에서 나는 타인이 나보다 잘났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불편해했다. 인정 단계로 넘어와서, 사실 불편한 감정의 이유가 그 사람이 아님에도 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탓했다. 마지막 전환 단계로,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이유를 분석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해보고자 한다.</p> <p>박*윤 : 나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거나,</p>							



노력을 동등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지심을 느끼는 편이다. 또한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남들이 조언이나 지적을 하면 화가 나곤 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진짜 이 분야에 대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음에도 자의식 과잉으로 인해 화를 내곤 했다.

안\*찬 : 나는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즉흥적으로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자의식 과잉 상태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은호 : 나는 자의식 과잉 상태로 나를 바라봤을 때,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투덜거림이 많으며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또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 토의주제2 : 서로는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말해주기

김\*빈 -

박\*윤 : 욕심은 많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한다.

안\*찬 :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인 머리는 좋은 거 같다.

강\*연 : 단기적으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하는 것 같다.

이\*호 : 학교생활 외에도 다양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

강\*연 -

김\*빈 : 삶의 루틴을 잘 세워서 따르는 편이나, 타인에게 무관심한 것 같음.

박\*윤 : 장기적으로 하는 일을 잘하고 계획을 잘 이행한다.

이\*호 : 중압감에 눌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다.

안\*찬 : 주관보다 남의 의견을 더 생각하는 편인 것 같다.

박\*윤 -

김\*빈 : 자기 말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음.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음. 그러나 디자인 분야에 대한 소질이 있는 것 같음.

이\*호 : 감정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편이라 타인이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임.

안\*찬 : 너무 솔직해서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편임. 직설적으로 말을 함.

강\*연 : 타인과 친해지기 까지의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음. 타인을 잘 내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안\*찬 -

박\*윤 : 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깊이 집중하지 못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것 같음.

김\*빈 : 상대방의 감정을 잘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음.

강\*연 :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임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남을 쉽게 곁에 두지 않는 것 같음.

이\*호 : 마음이 여린 편이라 쉽게 상처를 받고 잘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음.

이\*호 -

박\*윤 :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며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같다.

강\*연 :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 편이나 자신이 아는 분야에 대한 말이 나오면 끝없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또한 모든 상황에 회의적인 편이다.

안\*찬 : 시멘트처럼 모든 상황에 잘 어우러지는 편이며 아는 것이 많은 것 같다.

김\*빈 : 아는 것이 많으나 아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감상문 :

강\*연 -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 I. 자의식 해체 』

1단계: 탐색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자의식 해체를 통해 그 원인을 탐색한다. 내가 어떤 발언이나 존재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2단계: 인정

네 무의식에서 비롯된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나의 열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맞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3단계: 전환

탐색과 인정을 토대로 그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

『 II. 정체성 만들기 』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되고 싶은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찌보면 자의식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비교하자면 이전 과정에서 해체한 자의식은 나에게 좋지 않은 자의식이라면, 만들어낸 정체성은 좋은 자의식이 된다는 점이 그 차이랄까?

좋은 자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쁜 요소들을 제외시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에게 적합한 요소들을 만들어 이상적인 정체성을 만들고 완성된 정체성을 나에게 투영시켜 생활한다면, 그 자체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가 될 것이다.

책 '역행자'에서는 '환경'을 강조했다.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나면 어느정도는 방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되고 싶으면, 나 스스로를 믿기보다 환경 설정을 더 중요시했다. 내 머리를 믿기보다는 인간의 심리

와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 투자했다. 인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일찍 일어나기'였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또 최대한 효율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했다. 작년부터 의도적으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물론 그 결과가 나의 어떠한 점을 변화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갓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책 속에서 이야기 한 정체성이 아닐까? 요즘들어 '새로운 경험을 주저없이 하는 나'를 또 다른 정체성으로 만들었다. 나는 새로운 경험과는 꽤 먼 사람이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동경한다. 새롭게 만든 정체성을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 『 III. 유전자 오작동 극복 』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다. 과거에는 이 유전자가 인간을 생존하게 했다면, 이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열등한 결과를 낳는 유전자가 되었다. 현대에 새로운 시도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다. 이 유전자는 현대에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작용한다. "사실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 박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일평생 인생을 장악할 수도 없이 돈과 시간으로부터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과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짓게 하는 부분이다. 솔직히 말하면 도전을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이것도 유전자의 영향일까? 다른 유전자 오작동으로는 편견(편향)이 있다. 과거와 다르게 전체의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어림짐작은 큰 손해를 야기한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일부만 보고 바로 단정짓기보다는 그것을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IV. 뇌 자동화 』

'뇌를 복리로 성장시킨다면' - 꾸준함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꾸준함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동안 작은 것의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았나 싶다. 하루 30분을 걷는 것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면서 그 작은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실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공부나 다른 여러 점들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왔다.

'오목 이론' - 눈 앞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 그 뒤의 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들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이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지, 아직 모르는 미래의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둘을 고민한다. 미래의 어떤 것은 그 달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나는 불확실함과 확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현재의 확실함과 안정, 미래의 불확실함과 성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최근들어 매우 큰 고민 중 하나다.

### 『 V. 뇌 자극 방법 』

1. 안 쓰던 뇌 자극하기 -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2. 안 가본 길 걷기 - 이것도 새로운 경험에 속하는 것 중 하나로, 안 가본 길을 걸으며 다양한 감각을 활성화시킨다. 3. 충분한 수면 - 수면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충분한 수면은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자는 것을 죄악시한다. 그 흔한 미라클모닝만 해도 그렇지 않나. 나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잠에 시간을 오래 들이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질'인데 말이다. 아무리 적게 자더라도 그 많은 시간동안 나보다 많이 잔 사람과 같은 성과를 낸다면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일까?

『 VI.역행자의 지식 』

메타인지: 자신의 능력을 아는 능력. 즉, 자신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한다.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실패는 메타인지를 높인다. 하지만 그 실패를 겪지 않아도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들이다. 하지만 독서로 지식을 흡수해도 실행이 없으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저 이상한 자신감만 남아 실패를 겪게 한다. "원시 유전자는 끊임없이 속삭인다. '실패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잖아?'라며 오작동 한다." 이 부분에 아주 제대로 찔렸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고 새로운 무언가의 불확실성에 나의 안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마인드로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내렸다. 나는 순리자였던 것이다.

김\*빈 -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역행자의 대부분은 '기버(Giver)'라는 것이다. 자신의 DNA에 새겨진 운명을 거스르는 역행자들은 부자인 것을 벗어나서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저자인 자청이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끔 도움을 줬을 때, 벌어들인 수익의 20퍼센트를 그냥 주는 사람이 있고 입 닦고 모른 척하는 사람 두 분류가 있었다. 전자는 승승장구하면서 자동수익 체계를 완성 시키게 되는 반면 후자는 점점 내리막길을 가면서 돈에 대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 사례를 들면서 자청은 역행자가 되기 위해선 기버(Give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밥을 사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고 내 과거 모습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었을 뿐 한 번도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돈을 써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말라는 말도 깊게 공감됐다. 미래 투자를 하기 위해 기버가 되는 것보단, 내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좋지만 나는 20대 초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자청은 역행자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22전략을 말한다. 22전략은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라는 것이다. 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빠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자청은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했다. 책

읽기와 글쓰기는 복리의 개념으로 조금만 쌓아두면 2배, 3배로 지식이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 성공한 자청이 말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책임기와 글쓰기를 강조한다.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22전략을 행한다면 복리의 개념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박\*윤** - “회피하지 말고 솔직해지자”

역행자는 7단계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나는 가장 인상 깊게 보고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든 ”1단계 : 자의식해체” 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보겠다. 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자존심 때문이라든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싶은 것일지..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지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돈이 많았으면 하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는 이유는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야”라고 합리화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 합리화는 마음만큼은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자는 자의식해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로 꼽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지 마라. 돈 그리고 부자에 대한 열망에 대한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한다.> 7단계 중 1단계를 인상 깊게 본 것은 나 또한 합리화를 많이 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의 상황을 인정하면 초라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깨는 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본다. 부모 역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 않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멋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를 하고 있다 생각한다. 기업들 또한 잘못된 걸 알고 사과한 기업과 그렇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기업의 평가가 달라진다. 물론 기업과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자의식 해체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안\*찬** - 뻔한 말이어도 누군가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부자는 누구나 희망을 한다. 과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돈 때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이다. 돈이 있어야 여유가 오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 책은 돈에 관해서 어떻게 벌어야할지 적혀있지만 사실 이 책에 제일 반복되는 내용은 태도인거 같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1시간정도 영어 공부랑 운동을 하면 몸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또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못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적으면서, 우리 삶의 습관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책 인거 같다.

나는 이 책이 돈에 관해서만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는다.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다. 공부라는 것도 하나의 습관화를 시켜서 하면 더욱 효율도

	<p>늘어날 것 같아서 추천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한 나는 내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들 좋은 사람이면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주변사람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책에서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은 주변에 감사함을 안 아낀다고 하더라. 나도 주변사람들한테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p> <p><b>이*호</b> - 역행자라는 책은 자칭이라는 지은이가 본인의 성공 비결을 밝힌 책이다. 몇몇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다. 그러나 그 몇 사람 중 내가 속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지은이가 오만할 정도로 방법에 대해 자신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저 방법을 통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개인의 노력이었을 뿐, 책을 읽은 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또, 무조건 그가 소개한 방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글쓴이는 계속해서 본인의 글을 읽고, 비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독자를 세뇌한다. 책에서 그가 소개한 첫 번째 단계는 자의식 해체이다.</p> <p>자의식 해체에서는 우리의 방어기제가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난 사람이 주는 정보”를 본능적으로 밀어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파트를 읽을 때, 설득력이 조금 떨어졌다. 본인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의식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굉장한 일반화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대다수일 수는 있다. 그리고 분명 자신이 만든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하는 책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던 지은이의 오만함이 보였다. 너무나도 확신하며 글에서 당신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며 마치 금전적인 성공을 통해 우리를 위에서 평가를 해도 된다는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글을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대중을 굉장히 수동적인 개체로 일반화 했을 뿐더러, 그는 이런 본인의 글을 반박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자의식 해체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즉, 귀를 닫고 입만 벌려 독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었다.</p> <p>이번 책을 통해 얻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 성공이라는 것은 곧 겸손과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고 어디까지나 자기개발서는 참고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p>
--	---

<b>북클럽 팀명</b>	<b>책GPT</b>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장 소 : CLC 1층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박*윤	학번		이름	안*찬
	학번		이름	김*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이*호				

## [ 여행의 이유 ]

### 토의 주제

#### 1.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난적이 있는가?

- 강\*연 : 이번 방학에 캐나다에 연수를 하러 가는데 자기는 연수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각 정리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또 새로운 경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간단한 이유는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놓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은 간단하게 가지고 간다고 했다. 늘 목적은 거창한 것보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얘기했다.

- 김\*빈 : 수학여행 때 제주도를 갔는데, 수학여행의 목적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제주도의 역사를 알고 싶었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제주도에 가보니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자연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자신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마주한 것에 실망보다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게 좋았다고 했다. 늘 티비로 나 책으로 봤을 때에는 제주도는 엄청 자연환경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안 좋은 것을 보고 실망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실망에서 멈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구나 생각을 하며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에 관심을 뒀다고 했다. 즉 이 말은 환경에서 그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로 눈일 돌린 거다. 정리하자면 목적이 비록 다르더라도 그 자리에서 실망을 하지 말고 새로운 목적을 찾으려 노력해야겠다.

- 박\*윤 : 목적이 없이 여행을 갔다.

수학여행으로 부산으로 갔다. 자신은 부산이 무서웠다. 어릴 때 본 영화 해운대가 너무 무서워서 부산에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못 했다. 그러나 수학여행으로 부산으로 갔을 때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반대로 높은 건물들과 바다들이 이뻐서 자신의 생각이 변한 거 같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못 가더라도, 여행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목적 없이 떠난 여행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 안\*찬 : 배낭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늘 목적을 가지고 떠난다고 했다.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유적지를 보고 어떻게 돌아다닐지 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목적은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 나라에서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유적지를 안 갈 때도 있었고, 배탈이 나서 음식을 못 먹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한 여행에서 목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적을 다 못 이루어서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목적에 다가가는 과정이 더 좋았다고도 했다. 또한 다음에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때는 더욱 유동성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가능할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배운 거 같았다고 했다.

- 이\*호 : 목적은 단순하게 잡고, 취향에 따라 목적을 잡을 거 같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거창할수록 새로운 것을 놓치기 쉽고 목적에만 의해 압박감을 느낄 거 같다고 했다. 자신은 먹는 것을 좋아하기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식은 그 나라에 문화가 쉽게 스며든 거 같다고 하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여행의 목적은 음식이지만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감상문

- 강\*연 :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의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여행의 이유’ 중 한 부분이다. 여행을 많이 해보지 않아 완전한 공감은 힘들지만, 여행을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얻고 온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행 같은 여행을 간 적이 약 3번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3번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친구와의 우정, 나의 성향, 그리고 여행에 대한 관심. 이 3가지였다.

우정을 얻은 그 여행의 첫 목적은 온전한 ‘여행’에 있었다. 하지만 여행을 하기 보다는 같이 여행을 간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번째 여행에서는 같이 간 친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 목적도 일부 충족했지만 그보다는 나의 성향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가장 최근 간 여행에서는 나의 여행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 여행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곳이 그곳이고, 바다가 같은 바다 같은... 그래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다. 하지만 여행을 하며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동안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다. 그 후로 여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저 내용이 꽤 공감이 갔다는 사실이다. 여행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말에, 책 제목인 여행의 이유가 생각나는 부분이었다.

작가는 자신의 여행에서 실패한 경험들을 대부분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여행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간접적인 여행을 하는 느낌이라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으



로는 아무래도 취향에 따라 책에 관한 평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에세이 유형의 책은 딱히 선호하지 않아서, 작가 개인의 여행 일기를 보는 느낌이라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었다고 느낀다.

- 김\*빈 : 이 책의 저자인 김영하는 자신의 여행기를 9가지로 정리해 책에 담았다. 직접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해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왜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여행보다 다른 사람들의 여행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여행은 집을 떠난 주인공이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여행기를 즐긴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저자는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집에는 내가 읽어야 하는 책들이 쌓여져 있고 해야 하는 청소거리가 넘쳐나는데 호텔에 가면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했다. 집에는 아픈 추억을 건드리는 사진도 있고, 떠나간 사람들의 무언가도 남아 있는데 호텔은 머물다 떠나면 되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여행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해주다 결국엔 ‘여행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나는 시간이 많음에도 여행을 가지 않으려 하는 타입이다.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여행도 일종의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번 방학에는 여행을 떠나야겠다 라는 용기도 갖게 되었다.

- 박\*윤 : “고정관념을 깨라”

다들 여행을 좋아할까? 나는 그닥 끌리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싫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익숙한걸 선호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나는 저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을 인상적으로 봤다. 먼저 내가 여행을 좋아하지만 누가 선동하지 않는 이상 그닥 끌리지 않는다. 저자는 여행은 마냥 만족하는 순간이 있어야 즐거우게 아니라고 말한다. 소설 작가로써 다양한 경험과 영감은 실패로부터 오는 것이며, 타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은 고정관념을 부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은 내면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고정관념은 여행을 수월하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는 내가 그동안 여행 했던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이라고 호캉스가고 놀러가는 것만 있지 않을 것이다.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나.. 지식을 얻기 위해.. 혹은 저자처럼 장소가 주는 편안함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나는 어땠을까? 위에서 말했듯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행을 주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여행이 주는 힘은 강렬하다. 새로운 외부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하지만 나에게 자극이 없었던 건 도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회피했던 것이다. 이 행위들은 내가 여행에서 자극을 받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기를 실패하게 한 원인인 것 같았다. 하지만 호텔은 굉장히 좋

아했다. 새하얀 이불에 폭신한 침대를 좋아했다. 저자는 이것을 삶의 안정감 때문이라 한다. 호텔은 내가 돈만 낸다면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준다.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라 한다. 아직 여행 즐기는 법을 모르지만 호텔은 좋아한다.. 이것은 반복되는 일상과 환경에서 잠시 도피하려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저자 또한 호텔을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말했다. 저자는 여행을 실제로도 좋아하지만 떠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여행을 시도해볼 힘을 준 것 같다.

- 안\*찬 : 여행의 이유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로써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흥미를 느끼면서 읽어봤다. 대 만족이다.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였다.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느낄수 있다.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 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며 그 환경에 흡수되는 기분을 느끼는거 같아서 좋았다. 작가는 우리는 여행을 가면 다시 현재의 삶을 버릴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을 했다. 나는 적극 동의 한다.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낌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한단계 더 단단해지고 느낀 것을 통해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어가는거 같았다. 나는 유적지를 다닌다. 유적지를 가기전에 정보를 찾고 갔을 때 직접 체험을 하고 갔다운뒤에는 다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여행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갔을 때 못 느꼈던 감정을 제 3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았을때에는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관점중에 제일 좋았던게 호텔이다. 호텔은 늘 깨끗하게 있는데 호텔에 가면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호텔을 설명한게 좋았다. 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도피처인거 같았다. 늘 어지럽히고 나갔다가 와도 다시 깨끗해진 방이 우리를 의무감에서 해소 시켜주는거 같았다. 이 책을 읽다 보니 다시 여행을 가면 더욱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호 : 여행의 이유는 김영하 작가님의 산문집이다. 이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행의 이유들에 대해 정리해 놓은 책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행의 이유라는 타이틀을 보고 들어가서인지 조금 두서없이 진행되는 책의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김영하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여행의 이유 중,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와 가장 비슷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보통 나는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기보다도 현생이 힘들어 잠시 나를 내려놓기 위해 떠나곤 한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배움과 같이 다시 새롭게 나를 들고 오는 것도 많다. 그럼에도 새로운 도시로 떠나면 느껴지는 그 낯선 공기와 주변 풍경이 내가 여행하게 하는 이유이다. 늘 같은 환경과 공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굳게 하는

	<p>것 같다.</p> <p>여행이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공간에 방문하여 돌아다니다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평소와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가게에 들어간다던가, 옷차림도 그렇다. 괜히 조금 더 과감한 옷들을 시도하기도 한다. 일터와 침터를 구분하는 것처럼 여행지와 삶터를 구분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p>나는 그런 의미에서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이라는 작가의 표현은 조금 슬프기 때문에 나에게 여행이란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p>
--	--

<b>북클럽 팀명</b>	<b>책GPT</b>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05월 22일(월요일) / 장 소 : CLC 라운지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박*윤	학번		이름	안*찬
	학번		이름	김*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이*호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p> <p><b>토의 주제 : 10명만 탈 수 있는 배에서 11명이 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b></p> <p>- 강*연 -</p> <p>한 명을 희생시키거나, 희생시키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질문이 나에게 는 질문거리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한 명을 희생하고 10명을 살리는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생각에 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가졌다. 하지만 북클럽에서의 토론에서는 달랐다. 누군가는 나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희생할 바에는 자신이 자진해서 죽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p> <p>하지만 여전히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1명을 희생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 방법은 공평한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책에 쓰여진 것처럼 랜덤으로 줄을 골라서 한명을 정하는 것도 공평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과연 그 상황이 현실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한명이 된다면, 나는 그 결과에 완전히 수긍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p>							

- 김\*빈 -

책에선 이 부분을 윤리 파트에서 이야기 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 만약 1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희생시킬 것 같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그나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와 범죄자 중 한 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어떨까? 대다수는 범죄자를 희생시킬 것이다. 범죄자는 존재 자체만으로 훗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사는 의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통해 1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생명이고 소중하다는 점에서 잔인한 선택일지 모르나, 나는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다.

- 박\*윤 -

저자는 [최대 10명 탑승 보트에 11명이 탑승했다. 1명이 희생해야 할 상황]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도리를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희생시키면 안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람의 윤리적 판단은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바꾸기도 하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나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다. 사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은 굉장히 죄책감이 들겠지만 내가 희생할 용기도 없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누구나 그 상황을 몸소 경험해야 느낄 수 있다. 윤리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과연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해줘도 고맙겠지만 죄책감이 없을 수가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 안\*찬 -

나는 좀 이기적이지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것 같다. 만약 내가 나이가 가장 많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사실 그러한 이유는 좀 무서운 생각이기도 하다. 공평하지 않고 하나의 합리화가 된 것일수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더욱더 밝은 미래를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만약 배가 아니라 사회에서 봤을 때도 우리 세대가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밝은 나라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것처럼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 희생하도록 할 것이다.

- 이\*호 -

결과적으로는 1명의 사람이 죽는 것이 11명 모두가 죽는 것보다 수량적으로

는 무조건 옳을 것이다. 1명의 '희생'으로 10명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과연 11명이 10명이 되는 순간 그 보트 위는 인간의 세상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보트 위는 더 이상 인간의 세상이 아닐 것이다. 마치 짐승의 것과 같은 야생의 것이 될 것이다. 만약 다른 위기가 생긴다면 또다시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처음이 어려울 뿐, 더 신속하게 누군가를 희생시킬 것이다.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 절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의 인생은 남의 자유, 삶을 앗아가면서까지 지켜낼 만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감상문

- 강\*연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편이 고대 이전의 지식, 모든 지식 이전에 알아야 하는 지식을 다룬다면, 1권과 2권은 고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시간의 지식들을 다룬다. 고대 이후는 이원론이 지배하는 시대였기에, 책의 구조는 이분법을 따른다. 현실 세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해 어렵고 복잡한 지식들을 하나의 단순한 구조로 재편한다. 방대한 분량의 역사부터 마르크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보수와 진보,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 등 반드시 알아야만 대화가 가능한 기초 지식들, 그러나 단편적으로만 접해서 연결되지 않았던 세부 지식들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정리되는 책이다. 1권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윤리' 파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책의 시작은 '우리를 시험에 빠트리는 윤리적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책은 하나의 경우를 제시한다. 표류당한 11명의 사람이 보트에 있고, 보트의 정원은 10명이다. 모든 짐을 빼고 그 이후에도 보트가 가라앉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책은 던진다.

책은 위의 질문을 던지고 윤리의 정의를 이야기한다. 윤리가 현실과 얼마나 접목되는지, 얼마나 윤리가 현실적인 건지를 말한다. 그렇게 의무론과 목적론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진다.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을 '목적론적 태도'라 하고 '과거'에서부터 주어진 의무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무론적 태도'라 한다.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따지고 보자면 나는 '목적론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도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론자들이라고 한다. 생각해 보면 의무론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것 같다. 물론 북클럽에서 한 명 찾긴 했지만 말이다.

윤리가 마지막에 언급된 이유는 윤리가 이 앞의 정치, 복지, 경제에 대한 쟁점들을 모두 종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설명할 뿐, 선택은 나의 몫으로 남겨둔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매력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 김\*빈 -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지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소양들을 족집게 강의 형식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준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역사 챕터였다. 역사를 알아야 뒤의 4개의 챕터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취약했다. 과거의 일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 지루하게 느껴졌고 양이 방대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조차 피로감을 느꼈다. 역사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될 때면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역사 부분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책에서는 인류가 시작한 시점부터 현대까지의 일을 설명해준다. 잉여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 종교가 생겨나고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 이성이라는 개념이 출현했다고 한다. 종교와 이성이 싸우고 난 뒤의 결과가 프랑스 혁명이고 산업혁명 때문에 세계전쟁이 발발했으며 현대에 이르렀다고 한다. 종교와 이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주어서 몰입을 해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충격 또한 받게 되었다. 역사 부분을 집중해서 읽다 보니 뒤의 챕터는 쉽게 이해가 되었다. 역사는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나처럼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 박\*윤 -

“윤리란 무엇인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나는 그동안 읽은 책들과 관련이 깊은 윤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윤리 파트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수적 관점으로 글을 나아갔다. 흔히 윤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마음 한 편에 윤리를 품고 있지만 품은 걸 버릴지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온다. 책에서 윤리는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나눌 수 있다 했다. 주어진 의무를?, 미래의 결과를? 윤리는 정말 애매하고 모호하고 어렵다. 나에게서 이것이 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윤리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수도 있다. 저자는 절대적인 윤리법칙을 찾으려고 했지만 위에서 말했듯 윤리에서 절대적인게 가능할까?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만 들뿐이다.

- 안\*찬 -

지적인 대화를 위해 필요한 소양들을 넣은 책이다.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

	<p>어 있다. 나는 윤리의 파트가 제일 재미있었다. 이과로써 나는 윤리의 내용들이 한 단계 생각을 어렵게 만드는 기분 때문에 좋았다. 과연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운 생각을 하는가? 꼭 내가 코딩 공부할 때 상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는 기분이었다.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배에 배가 침몰 안 하기 위해서 누구 1명을 떨어트릴까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았다 다양한 관점이 나오고 그 관점마다 이유가 있으며 윤리부터 논리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한게, 마치 코딩에서 주석을 훑쳐보는 기분 같았다. 코딩도 하나의 주제에 다양하게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마치 윤리 같았다. 윤리처럼 어려우며 다양한 이유가 나오며 그 이유에는 다 타당성이 있다.</p> <p>나는 이과여서 윤리랑 문과적인 지식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 잘 모르기도 하고 흥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윤리 파트를 읽다 보니 새로운 관점도 생기고 흥미롭게 윤리를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학습에도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것 같아서 좋았다.</p> <p>- 이*호 -</p> <p>이 책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적이 있는 책이다. 이런 교양서적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특히, 내가 사회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것과 비교하며 읽게 되었던 것 같다. 어릴 때는 무반응적으로 그저 읽기를 하며 지식을 습득했다면 지금은 내가 배운 것과 비교하며 의문점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다.</p> <p>이 책은 역사부터 시작하여 윤리로 이어지는 빌드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시인 트롤리 딜레마와 비슷한 예시를 주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게 한다. 표류당한 11명의 사람이 10인용 보트에 있다. 모든 짐을 빼고 난 후 그 이후에도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누군가를 희생시킬 것인가?</p> <p>어찌 되었든, 이러한 질문으로 독자로 하여금 뚜렷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고 덕분에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	---

<b>북클럽 팀명</b>	<b>책GPT</b>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 년 5 월 29 일( 월요일) / 장 소 : 도서관 C-square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박*윤	학번		이름	안*찬
	학번		이름	김*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이*호				
<b>토의 내용</b>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읽은 책을 중심으로)

토의 주제 : 인간은 과연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라 볼 수 있는가?

강\*연 -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정함이 이제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다정함과 협력이 현대의 살아남기 방법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다정하고 협력적일 수밖에 없다. 본래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꽤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주제로 분쟁해왔다. 바로 성선설과 성악설이다. 누군가는 성선설을, 누군가는 성악설을 이야기한다. 나는 성악설이라는 쪽이기 때문에, 저자의 책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간이 다정했으면 동물을 죽이지 않았겠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마치 과거 동물을 잡아먹고 인간을 학살하고 정복하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결국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정하고 협력적인 것이 생존에 효과적임을 체화하고 이것이 현대에 까지 이어졌으며, 우리는 이것을 다정한 것의 본질적인 힘이라 착각하고 있다.

김\*빈 - 나는 인간이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선설보다 성악설을 믿기 때문이다.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운다. 생존하기 위해 '운다'라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아이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질투'라는 감정을 갖는다. 아이의 부모님이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아이는 투정을 부리거나 울어버리는 것으로 질투를 표현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배우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생겨난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다르다. 가르쳐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좋음'은 배우지 않아도 표현한다. 하지만 '선행'은 다르다. 남을 도와주는 마음은 배워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인간 자체가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정한 성격을 갖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박\*윤 - 그렇다. 소감문에도 적었지만 적자생존이라는 주장이 생기기 시초를 들여다보면 서로 협력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바꾸어 생각한다면 흔히 강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겉으론 다정하다 볼 수 없어도 그 협력 속에서 자기들만의 다정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하위계층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이지만 토론 주제만 보았을 때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찬 -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존재에게 다정하게 굴고 챙겨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협력하는 종인가 아는 내 대답은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협력을 하고 지냈다.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사회의 일원으로 맞게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살아가는데 더욱더 좋은 생존 법칙이었고, 개인보다는 무리가 더 강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사



회에는 협력보다는 개인주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온 거 같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하려면 개인으로서 성공보다는 협력해서 성공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이\*호** -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대외적인 면으로는 다정하고 협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인간은 원래부터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보자, 인간이 다정하고 협력적이었다면 원시 시대 거대한 야수를 인간과 협력해 잡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대한 야수와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기와 같은 무리 즉 불특정함이 덜한 동족과 협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관계일 뿐, 정말 근원에서 우려나온 다정함과 협력이라는 특징이 만든 관계는 아니다. 즉, 현대인이 과제라는 미지에 맞서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 그나마 가까운 학우와 비즈니스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거대한 야수라는 공동의 적이 그들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엮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정하고 협력적이었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야만적이고 이기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감상문]

**강\*연** - 과연 다정한 것이란 무엇일까? 나는 다정함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종들 중 가장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인간이 ‘다정해서’ 살아남았거나 살아남기 위해 ‘다정해졌다’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후자가 더 맞는 말이라 생각한다. 물론 책을 읽기 전에도, 후에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저자는 자기가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늑대보다 개의 생존율이 더 높은 이유는 개의 자기가축화 덕분이라고. 개는 인간에게 친화력 있게 반응할 수 있고,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듣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본다. 맞는 말이다. 개가 인간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해올 수 있던 이유는 개의 친화력(?) 덕분이다. 개인적으로 친화력보다는 ‘복종’이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찌됐든, 저자가 말하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틀리다고도 볼 수 있다 생각한다.

인간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저자는 다정함의 강력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정한 인간이 폭력적인 인간보다 더 잘 살아남았음을 적고 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지만, 과연 다정함이 폭력을 절대적으로 우위인 것일까? 아니면 이제는 폭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정함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다정함은 본래 폭력보다 위였던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생각했다. 만약 폭력이 아직까지도 통하는 사회였다면, 다정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다정함을 계속 유지했을까? 현대사회의 다정함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그 속에서도 다정함은 유지가 되었겠지만 아마 그 다정함을 드러내지는 않았

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질문이었던 다정함과 폭력의 우위관계는 어떨까? 다정함이 본래 폭력보다 위였다면, 이전의 폭력이 사회를 지배할 당시에는 거짓된 살아남기 방법이였을까? 참 어렵다.

**김\*빈** - 이 책은 세 개의 챕터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인간이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호모종과는 다르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과 이 지구의 지배종이 될 수 있었던 건 협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협력성은 사피엔스에게 인지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가축화를 진행했고 그 단계에서 인지능력이 발현된 것이다. 가축화가 된 강아지나 고양이와는 다르게 말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정한 유전자를 가진 인류가 어떻게 잔인하고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집단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집단에 포함되지 못했을 때 공격적이게 된다고 한다.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좌파와 우파의 싸움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잔인한 특성을 억누르고 어떻게 다정하고 협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방법은 바로 '비인간화'를 불러일으킬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는 서로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언행을 해야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적인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아픔이 많고 각박해진 사회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겉보기엔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과학 책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따뜻했다. 우리는 원래 다정한 사람이었고 지금의 갈등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 것 같다. 또한 인간 특성에 대한 설명 덕분에 갈등을 거시적인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박\*윤** - “새로운 관점”

우리는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등수 기준으로 등급을 받고,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받는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선 간혹 600:1를 뚫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작은 활동마저 경쟁을 해야 한다. 이 처럼 대부분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가장 머리를 잘 굴리는, 가장 똑똑한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살면서 주변 사람이나, 미디어나, 책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다. 많은 생물학자는 자연은 “적자생존”이라 한다. 자연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곳, 즉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다. 인간은 종이 한 장으로 상처가 나고, 사자를 무서워하고, 심지어 손톱보다 작은 벌레들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인간이 강하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 아닌가?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나는 인간이 마냥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 생각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허무함만 남는다. 의문점만 남는 상황에 이 책에서 다윈은 그렇게 말한다. 바뀌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최적자가 아닌 다정했기 때문이다. 즉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정한 것? 굉장히 모순된 말 아닌가? 생각했다. 나처럼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여기서 다윈은 근거 3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손짓과 마음이론. 두 번째, 개와 여우. 세 번째. 동물과 인간을 향한 태도 상관관계.

### 1) 손짓과 마음이론

유일하게 사람만 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은 손짓이다. 말을 떼기도 전부터 시작하는 단계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첫 의사소통이 말이 아니라 손짓일 것이다. 손짓은 말보다 직접적이기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이론”이라고 정의한다. 손짓은 정교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과거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이유도 과거부터 손짓으로 정교한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난 처음부터 생각도 못한 부분이였다. 생각해보면 말을 할 때 손짓이 다양하고 사람들이 풍부하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며 농인들이 생각났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대화를 한다. 농인들에게 손은 입을 대신한 수단이다. 하지만 손만 뺨뺨 움직인다고 좋은 의사소통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톤도 바뀌고 손짓도 하는 등 진심을 다해 표현하는 것처럼 농인들은 수어에 맞는 표정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에게 정교한 표현법이 손짓이라면 농인들은 표정이 정교한 표현법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 2) 개와 여우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가끔 개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반려동물을 대표하는 개는 과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함께 해왔는가 신기할 따름이다. 다윈은 이 점을 주목했다. 한 실험에서 인간에게 친화적인 여우와 닭을 관찰했다. 결과는 친화적일 수록 여우의 경우 주둥이가 짧고, 작은 이빨을 가진 외형을 나타냈다. 이는 개가 가축화되던 초기 변화와 흡사하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번식주기가 증가한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동물이 더 높은 번식 성공률을 보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가축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 있는 부분이 보였다. “고릴라에게 사물에 손짓을 하면 고릴라는 손끝을 바라보고, 개는 손짓이 향한 사물을 바라본다.” 이 문장을 보고 인간과 개가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던 이유가 보였다. 실제로 요즘은 다양한 동물을 키우지 않는가, 그럼에도 개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 걸 볼 수 있다.

### 3) 동물과 인간을 향한 태도 상관관계

다윈은 마지막으로 동물과 인간을 향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의 거리감은 사람 집단 간의 거리감과 같다. 개에 대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자는 열등한 집단에 속한 타인을 동물로 바라보기 쉽다 이야기한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강약약강의 상황이 다수 보인다. 최근 강원대학교 후문에서도 하의를 입지 않은 남성이 많은 사람들 중 여성만을 폭행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학우를 폭행하는 학교폭력은 얼마나 많은가. 최근 넷플릭스에 방

영된 <더글로리>에서도 약 20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약한 자를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무시한다. 다윈은 이렇게 자라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년기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 말한다. 실제로 고양이를 죽이다 살인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다윈은 위와 같은 것이 싸이코패스 유년기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한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지능이 뛰어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선을 굽는 행위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 저자는 모두가 저마다 특별한 자질과 재능이 있으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있다 말하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닌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냐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다.

솔직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놀라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던 것 같다. 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유도 친화력과 협력이라고 말한다. 나는 다윈의 주장에 동의하고, 어느 정도 적자생존 주장도 동의한다. 하지만 적자생존의 시초도 그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힘이 세거나 세력이 세거나 그런 방향으로 많이 떠올리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랬던 이들도 어찌됐던 성장 배경 속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단순히 결승점만 생각하는 이들이 아닌 도움을 받았던 적을 생각하고 지금의 힘을 도움과 배려에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 직장후배든, 기부든 어디든지.

**안\*찬** - 이 책을 읽다보니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당연히 약육강식에서 강한 게 살아남고, 늘 경쟁을 하는 삶에 살다보니 누군가를 이겨야하고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가는 성과제도의 사회를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친화력이라는 특징이다.

우리는 누구랑 협력을 하며 지내왔고, 우리의 생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당연하게 이기적인 사회를 생각을 했고 누군가를 이기는 거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과연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할까?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더욱더 좋은 게 아닐까를 곰곰이 생각했다.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할 때보다는 남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가 더욱더 편했고 더욱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늘 경쟁사회에서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막상 친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니 낯설지는 않는다. 우리는 당연하게 남들한테 친절을 베풀면서 협력을 하는 집단사회의 일원이니깐.

당연시 해왔던 것을 생각을 못하고 늘 안 좋은 경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경험이었다.

**이\*호**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의 요지는 친화력이라는 특성이다. 이런 특성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종에 대해 저자는 이야기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적자생존이라는 진화학적 개념을 탈피하여 'Survival of the Friendliest'를 이야기한다. 즉, 최적자가 아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손짓이라는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이 시작되고 여우, 닭과 같은 다른 종의 친화력과

	<p>관련한 실험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협력은 우리 종의 생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말한다.</p> <p>나는 이 책이 개인화가 확산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담론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협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대학생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협력은 바로 조별 과제이다. 이런 조별 과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보통 부정적이다. 그것은 불특정성에서 오는 것이다. 면역학적으로 우리는 미지에 대해 공포를 갖는다. 아는 사람이 아닌 불특정인을 만나 협력하는 경험인 조별 과제는 이런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정함과 협력적임을 취사선택하는 것일까?</p>
--	--

<b>북클럽 팀명</b>	책GPT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05월 31일( 월요일) / 장 소 : 도서관 C스퀘어							
<b>참석자 명단</b>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안*찬
	학번		이름	김*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강*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이*호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 가진 돈은 몽땅 써라 ]</p> <p><b>토의 주제</b></p> <p>1. 율로족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인가?</p> <p>- 강*연 -</p> <p>이 책을 읽다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율로족이다. 율로족이란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닐까? 한때 SNS를 달구던 율로족은 그 경향이 이어져 현재에까지 와 있다 생각한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율로족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아마 지금의 율로족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p> <p>율로족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리고 현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싼 물건을 사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며 자신들을 율로족이라 이야기한다. 나는 율로족의 진정한 의미가 변색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미 현재의 율로족은 그저 과시하는 사람들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p>							

- 김\*빈 -

나는 뉴스와 인터넷 밈을 통해 율로족이라는 신조어를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율로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였다. 허세가 가득하고 빈 깡통 같은 사람들 일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로 율로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율로족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불분명한 미래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재에 충실한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대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분 뒤에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일까? 모든 것을 재보며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율로족이 오히려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박\*윤 -

그렇다. 단순히 율로족을 노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자의 생각과 내가 배운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율로족도 나름의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율로족은 미래보다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투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치스러운 행위라 생각하는 자도 있지만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안\*찬 -

나는 반은 긍정이고 반은 반대이다. 율로족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 취향을 좀더 살려 자신의 특색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까지 할 수 있다.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는 멋진 일이다. 자신의 취향을 한껏 더 올리는 거다. 속된 말로는 오타쿠라고 하지만 이런 오타쿠는 나는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은 돈을 노는 데에만 쓰는 사람들 술이나 파티 같은 데에서 쓰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한 일들은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 이\*호 -

율로족이란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즉,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누군가의 행태에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굳이 나눠보자면 율로족에 대한 나의 입장은 긍정이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한 물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로

라는 말을 앞세워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이들에 대한 나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옳로라는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고 싶을 뿐인 한탕주의자의 논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 감상문

- 강\*연 -

책 제목이 '가진 돈은 몽땅 써라'라니 너무 현실감 없는 책 제목이 아닌가 싶었다. 결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아직도 이 책의 제목은 조금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책의 내용처럼 작은 돈을 아끼는 것에 급급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나에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막상 하기에는 어려운 말이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지금 당장의 보험개념의 무언가를 없애는 게 참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책을 읽으면 또 저자의 말에 수긍하게 된다. 출퇴근 2시간을 줄이고 스트레스와 잠재적 손실을 없애는 것. 아주 타당한 이야기이다. 잘 노는 것이 역량이 되는 시대라 저자는 말한다. 맞다. 지금까지 대학생살을 해오면서 잘 노는 친구들은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나는 그 경험을 부러워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많은 경험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았나? 그 당시 나는 그 경험들이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실용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쓸모 없는, 그보다는 공부를 더 하거나 지금의 일상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생각은 틀린 것 같다. 물론 그 방법도 좋았겠지만 남들이 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하는 것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더 빛나는 내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 그리고 몸으로 깨닫는 무언가를 가치있다고 여기며 책의 내용을 이어나간다. 정말 맞는 말이다. 이제는 하고싶어도 할 수 없어 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문득 드니 꽤 무섭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 만약 누군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써서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라고 하면 나는 과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나는 꽤 안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요즘엔 좀 다른 생각을 한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마저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김\*빈 -

나는 이 책이 돈에 대한 자기개발서 중에서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다르게 가진 돈을 몽땅 쓰라고 말한다. 미래에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 저자는 보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어 돈을 낸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처리를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사다. 또한 저축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저축을 은행 좋은 일 해주는 거라고 말한다. 경제가 무너져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면 저축한 돈은 저축할 때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모은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미래에 투자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과감히 돈을 지불해서 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가지라고 한다. 돈을 사용한 만큼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한다. 반대로 저축한 돈은 저축한 만큼 내가 잃어버린 경험들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공감을 했다. 과거에 돈이 없어서 배우고 싶은 학원에 등록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배우질 못하고 있다.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학원을 등록해 배웠다면, 지금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학원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돈도 없을뿐더러 시간도 없어서 아예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 돈을 쓰는 만큼 경험을 쌓고 인생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박\*윤 -

“지금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써라, 놓고 먹고 다 해라, 이러한 책이 아닌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말라는 이야기다. 읽기 전에는 좀 불안했다. 투자라는 것이 자격증이나 공부..이런 것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솔직히 여가생활에 소비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물론 다행히도 아니었다. 오히려 저자는 노는 것도 역량이라며 지지해주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재미있는 술자리도. 문득 어떤 분의 글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과 식사해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능력과 영역, 시선의 폭을 넓히려는 이야기다. 시간은 돈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저자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몽땅 사라고 제시한다. 돈으로 시간을 사라고? 문득 들으면 모호한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활용하라는 이야기다. 아이디어가 좋지만 돈이 없어, 그렇다면 빌려서라도 아이디어를 빨리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높은 CEO와 밥을 먹을 때 비싼 돈을 내면서 까지 점심을 대접한다고 한다.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력 좋은 CEO의 시간을 사는 개념이라고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난다. 사실 요즘 시간이 금값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하지만 나를 되돌아보면 내가 시간이 정말 부족했던게 아니라 헛되게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만 안해도 4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잠을 조금만 줄여도 3시간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가. 때문에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 안\*찬 -

우리는 어릴때부터 돈을 저축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책에서는 우리의 돈을 몽땅 쓰면서 돈을 쓸 때 배우는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했다. 돈을 쓰면 쓸수록



더욱 번다고 했다. 나는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다. 돈을 쓰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경험을 점점 그 분야를 잘 알게 된다. 나도 옛날에는 옷을 잘 입지 못했는데 옷을 사다 보니 점점 나한테 맞게 입게 되고 잘 입게 되었다. 만약 내가 옷에 돈을 안 쓰고 그대로 갔으면 잘 입을 수 있었을까? 늘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책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그러나 여기 책에서는 모든 돈을 몽땅으로 쓰라고 하지만, 나는 몽땅은 아니고 목돈 정도는 남기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거 좋다. 그래도 나는 작가가 얘기하는 돈을 써서 경험을 하는건 적극 동의한다. 나는 이 책을 돈을 저축만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저축은 좋은 일이지만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 이\*호 -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소비를 권장하는 글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미래라는 불확정성의 불안 속에서 저축하며 위안을 삼아 살아간다. 그러나 이 책은 그것을 비판한다. 저자는 돈을 모으기보다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는 것이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보다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한다. 나는 이것에 어느 정도 공감은 했다. 돈이라는 것의 실체는 그 돈을 사용하여 우리가 효용을 얻을 때까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통장에 돈은 모아가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돈을 사용하여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동시에 돈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알 수 없는 경험에 대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소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책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